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왼쪽)과 정갑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유니세프 협업 국내외 아동·청소년 디지털 보호 프로젝트

신한카드가 유니세프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위험을 대비한다.

◆ CDR경영 통해 디지털 양극화 해소
신한카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미래세대 보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국내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학습자료를 지원한다. 지역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어 해외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장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핵심은 '기업의 디지털 책임 경영(CDR)'이다. CDR은 디지털 사업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의미한다.

비씨카드, 은퇴자 소비 패턴 분석 60대 이상 소비 상승 여행 업종 최다 결제

비씨카드가 은퇴자의 노후생활 소비 패턴을 분석했다.

◆ 결제액 상위 업종은 '여행'

비씨카드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액티브 시니어는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60대 이상의 소비흐름 분석결과 고객수와 결제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60세 이상의 고객수와 결제액은 2018년 동월 대비 각각 7.3% 포인트(p), 8.5%p 상승했다.

결제액 증가율 상위 업종은 '여행' 분야였다.

KB국민, 추석 앞두고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KB국민카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오프라인에서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 선물세트 구매하면 추가 할인

KB국민카드는 이마트, 쿠팡 등 주요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함께 다양한 연휴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KB페이 활용하면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온라인 가맹점에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20%를 할인한다. 할인하는 도는 최대 20만원까지다. /김정선 기자

'오락가락' 대출규제에 시장·차주만 혼란 가중

정부, DSR 완화 대안 '만기 연장' 가계부채 증가로 정책상품 제외 일부 은행 만기·나이 제한 도입 "현재상황 해명·대책 내놓아야"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등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대출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출시 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의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현재는 '대출증가 주범'으로 지목된다. 갑작스런 금융당국의 브레이크에 대출을 받으려던 대출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조5912억원 늘었다. 지난 6월(6332억원)과 7월(9755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감소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514조9997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1122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의 75% 수준이다. 5대은행은 7월 초부터



고객들이 주담대 상담을 위해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뉴스1

8월 중순까지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 바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7월말 8000억원대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만 2조원 넘게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원인으로 50년 주담대를 지목한 이후 제재를 가할 것이라 이야기가 나오자 지난달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DSR 규제 완화 대신 '주담대 만기 연장' 카드를 꺼내면서 만기를 늘린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40년 만기 주담대를 처음 선보였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초엔 SC제일은행과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계부채는 급증, 결국 금융당국은 DSR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지목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들자 농협은행은 지난달 31일 판매를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줄인다. 신한은행은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뒀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당국의 입장과 발맞출 것

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애초에 DSR 우회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인데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잘못된 상품이라는 오명으로 일종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려는 사람들이다.

50년 주담대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사람들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나이제한을 도입하면서 일부 은행에서 40대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수 없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나이와 만기를 관련지어 젊은 층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고자 나온 대안은 40·50년 만기 주담대인데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정책상품을 제외하면 결국 정부가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과 차주에 혼선을 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해명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신한은행, '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 제공

신한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 대상 서비스 신청시 미니보험 가입 혜택

신한은행이 신한은행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한은행은 13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4대 공적연금), 보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는 신한 솔(SOL) 또는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타 금융사를 통해 연금을 받고 있는 고객은 솔(SOL) '연금라운지' 또는 영업점에서 신한은행으로 연금 입금계좌를 변경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4대 공적연금, 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매월 추첨을 통해 ▲신한라이프 신한독감케어건강보험(무배당) 100명 ▲신한라이프 신한대중교통보장보험(무배당) 300명 ▲신한EZ손해보험 신한레저보험 100명 등 총 2000명에게 미니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미니보험 보장기간은 독감보험 5년, 대중교통보험 3년, 레저보험 1년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금수급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 금리 차등 인상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5%

케이뱅크가 '코드K정기예금(12개월 이상)' 금리를 연 4%로 인상한다.

케이뱅크는 13일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이라면 금리는 4%다. 기존 3.8%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연 3.3%에서 연 3.5%로 인상하고,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연 3.9% 금리를 제공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케이뱅크관계자는 "코드K정기예금을 2주전에 가입한 고객은 금리보장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큰 금리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예보, '파산배당금' 모바일 안내 실시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 2.1만명

예금보험공사가 파산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에게 모바일 문자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5000만원 미만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지만, 5000만원 이상은 예금자 보호가 불가하다. 5000만원 이상 예금시, 파산저축은행의 자산을 매각한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배당금을 받지 않은 예금자는

약 2만1000명으로 1만원 미만 소액은 47.7%, 10만원 이상은 16.5%다.

예금보험공사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24시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해 다시한번 안내한다.

파산배당금은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지급신청도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파산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파산배당금 등 미수령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서금원, 청년층 위한 '청년금융아카데미'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층대상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금융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금융아카데미는 올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등을 활용해 청년들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금원은 금융아카데미에 경제·금융 유튜브 슈카와 김동업 미래에셋 상무를 초빙해 자산관리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청년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재무관련 고민에 대한 일문일답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아카데미 시작에 앞서 서민금융홍보부스에서 청년도약계좌, 햇살론유스 등 서금원의 청년·대학생 맞춤형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서민금융 관련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26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청년금융아카데미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인 300명이 넘으면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재원 서금원장은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일수록 초기에 개인 재무관리 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 등 맞춤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도적으로 재무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